

프랑스는 과연 우리 사회의 '교본'인가

일련의 주장에는 과장과 왜곡 많아...

주체적인 반성과 전망 주목해야

김성기 | 문화비평가

김성기씨는 홍세화씨의 '프랑스 사랑'이 지나치다고 비판한다.

그는 프랑스 사회를 일그러진 우리 사회를 교정하기 위한

교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홍씨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 문화를 다른 문화와 대조해 선택의 문제로 이끌어가는

것은 문화적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다.

"프랑스에서는 철학이란 분야가 전국민의 관심 분야라던데, 프랑스에서는 택시기사도 플라톤을 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학교수조차도 《도덕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이들이 많다던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보문고의 인터넷 사이트(www.kyobobook.co.kr)를 훑어보다가 우연히 마주친 구절입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우리네 인문 교양의 낙후성을 지적하려는 의도였을 텐데, 하필 그 대목에 제 눈길이 머문 이유는 언제부턴가 '프랑스적인 것'을 앞세우며 논의하는 우리 문화관의 한 흐름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프랑스에서는 저러한데, 한국은 이러하다'는 투의 비평 논리가 그것입니다. 이때 '저러하다'가 하나의 모델이자 교본 구실을 한다면 '이러하다'는 그에 비취 교정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술과 문화의 나라'라는 선입견

이런 식의 비평이 상당한 영향을 발휘하게 된 데는 논객 홍세화의 베스트셀러가 단연 한몫을 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을 줄 아는데, 1995년 《나는 빠리의 택시 운전사》(창작과비평사)와 1999년 《쎬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한겨레신문사)는 '한국사회와 프랑스사회의 만남'을 주창하며 우리의 부끄러운 삶과 정신에 일침을 가한 바 있지요. 또 얼마 전 조홍식이 '프랑스 사회의 특성'을 소개하는 《똑같은 것은 싫다》(창작과비평사)를 펴냈듯이 '프랑스를 읽고 배우자'는 주제는 오늘의 개방화·세계화 추세와 맞물려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왜 (영국, 독일, 일본이 아니라) 프랑스인가 하고 따질 생각은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도 많이 알면 좋지만 이 기회에 프랑스만이라도 집중 공부하는 게 그리 나쁠 건 없죠. 사실 우리에게 프랑스란 나라는 꽤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요. 무엇보다 '예술과 문화의 나라'란 선입견 또는 인상이 깊이 새겨 있으며 그렇게 된 맥락은 따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

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파리'나 '불란서'라는 말투에 그런 호감이 잔뜩 묻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 어느 문인이 "나는 파리에만 도착하면 가슴이 콩딱콩딱 뚫다"고 했을 때 나는 공연한 시샘을 느꼈을 정도입니다. 물론 사실 확인은 어렵지요. 주관적 취향이나 감수성의 문제니까요. 방송인 이다도시에게 "파리의 밤은 정말 사람을 못건디게 하느냐"고 물어본다 해도 사정은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홍세화의 프랑스 이야기는 저간의 "불란서 파리" 애호가들의 이국취향이나 심미 취향과는 썩 다른 차원의 것이기에 각별한 주목을 요합니다. 왜냐, 그는 '우리사회가 프랑스사회에 비해 확연히 뒤떨어져 있다'는 증거를 세세히 논증할 뿐만 아니라 갈등과 증오가 만연한 우리가 향후 따라야 할 바람직한 사례로 프랑스를 새로 부각시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경제·문화 전반의 차원에서 사회개혁을 이루고자 할 때 프랑스의 삶과 문화는 우리에게 하나의 (심지어는 필수) 교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죠.

그에 대한 내 입장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홍세화의 표현대로 '냉소를 머금은 비겁한 소시민들'의 '적당한 타협'과 '억압된 굴종'같은 현상을 애써 부인하려는 건 아니며 '한국사회란 숲에는 온통 탁류가 흐르고 있다'는 진단은 어찌 보면 상식이기도 하죠. 흔히 유럽 여행을 다녀온 다음 '난/우린 참 바보같이 살았다'며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곤 하는데, 이 또한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망각한 채 거칠게 살았다는 자성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결과 달리 '속이 없다'는 자의식 탓에 꽤나 속앓이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인데, 그렇다고 우리사회가 곧바로 '프랑스를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명제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정말 바보 같은 우리네 처지 또한 엄연한 삶의 현실이자 문화인 이상 그것을 다른 문화와 대조시켜 '이것이냐 저것이냐'란 선택 문제로까지 치닫는 건 결코 '문화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홍세화의 지나친 프랑스 사랑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쎬강은...》는 우리가 프랑스에서 배워야 할 사항을 이렇게 적시합니다. "프랑스는 개성을 존중하며 외국인에 대해 관대하다" "정치적으로 좌우가 균형을 잡는다" "지식인 문화에는 드레퓔스의 전통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일반 시민이 기

꺼이 동조한다” “교육기회가 균등하며 내용 또한 창의적이다” “프랑스인은 미국의 부유함을 부러워하기는커녕 앞잡아보는 편이다” 등등. 이 모두 구구절절 뼈아픈 이야기기 아닐 수 없으며, 전국민의 최저생계보장이나 무료 교육제도에 이르면 우리로서는 선망보다는 오히려 한숨과 분통을 절로 터트리게 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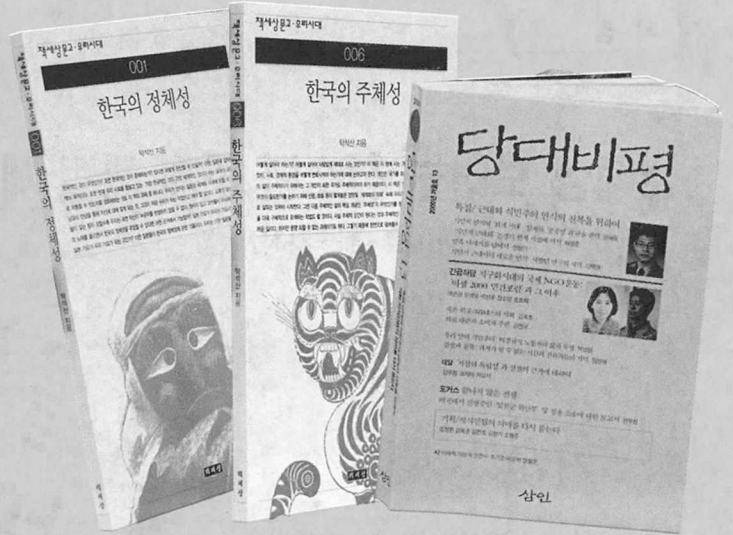
이상 홍세화의 눈에 비친 프랑스는 우리가 갖고 있던 ‘불란서 파리’에 대한 호의적 감상이나 시각이 단순히 편견만이 아니라 그들 역사와 현실에 터하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도 가능하죠. 게다가 그 이야기의 많은 내용이 《똑같은 것은 싫다》에도 중복되고 있기에 이들이 재현하는 ‘프랑스적인 것’은 실제 현실의 그것으로 흔쾌히 수용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한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시각도 있는데, 김용우의 글 〈쉴즈강은 파리의 한가운 데를 흐르고〉(《당대비평》 2000년 겨울호)가 그러하죠. 이 글은 “‘홍세화의 프랑스 사회’는 실상과 다르다. 왜곡과 과장이 많다. 한국사회의 온갖 모순을 볼모로 프랑스 사회를 신비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나로서는 ‘우리의 모순을 볼모로 해서’라는 지적에 상당히 공감하는 편인데, 당사자는 어떤 반응을 펼지 자못 궁금하네요.

톨레랑스. 아마 이게 홍세화 비평의 핵심 전언일 텐데, “우리는 프랑스의 톨레랑스 전통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만 통일의 초석도 다져질 수 있다”는 신념을 밝힙니다. 자신에게는 톨레랑스 사상(?)을 우리 땅에 전파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그것을 수행할 목적으로 프랑스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나 역시 “우리에게 관용의 미덕이 약하다”는 비판에는 동의하며 “우리 사회가 좀더 진보하려면” 관용 정신은 필수조건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톨레랑스가 없다’는 게 ‘톨레랑스 사상에 대한 무지의 소치’에서 비롯한다는 견해는 성급한 단견이죠. 또 과연 프랑스에만 유럽 근대문명의 톨레랑스 전통이 울곧게 살아 있다는 평가에도 의문의 여지가 많으며, 걸핏하면 반복되는 ‘영국과 독일에 비해 프랑스가 문화적으로 우월하다’는 진술은 해당 국민을 공언히 모욕하는 면도 없지 않지요.

하지만 그 문제는 당사자의 그쪽 소관으로 제쳐두더라도 홍세화의 프랑스 이야기에는 안티-톨레랑스의 면모가 있다고 봅니다.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출창 반복해서 “프랑스는 톨레랑스 사회다, 양심사회다”고 되뇌이면 가뜩이나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우리 한심한 영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화대국 프랑스의 자존심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를 보자는 제안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간 협상 과정에서 우리사회가 보여준 거친 민족감정이나 ‘우리 것이니 내놓아라!’는 주장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지만 결국 ‘갈자루를 쥔 양심사회’의 입장에 기운 것만은 분명합니다. 혹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여전히 “나/우리에게는 톨레랑스가 없다”고 대꾸하면 할 말은 없지요.

주체적인 사유와 실천 싹트고 있어

톨레랑스에 대한 홍세화의 믿음은 존경할 만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열정적으로 들려주고자 하는 사연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열정이 지나쳐 “내가 한국에 좋은 가치를 소개했으니 배우고 실천할 생각이나 하라”는 투로 으박지른다는 느낌을 굳이 감추고 싶지 않습



니다. 우리가 양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에 전혀 둔감한 것인 양 취급하는 건 또 다른 독단이 아닐 수 없는데, 저간의 민주화 운동이나 양심수 문제만 해도 이미 톨레랑스의 정신을 무기로 삼고 실천했던 움직임, 그 소산이지요. 나는 처음 ‘톨레랑스’란 말을 접했을 때 ‘그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하며 자문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보편가치기 때문에 그냥 ‘관용정신’이라고 하면 될 터인데 굳이 ‘톨레랑스’란 표기를 고집하는 이유 또한 석연치 않습니다. 이 궁금증은 최근 번역된 필리프 사시에의 《애 톨레랑스인가》(상형문자)를 보며 더욱 커졌는데, 저는 그 책의 출간이 “톨레랑스 이념을 처음 소개했다”는 평가 앞에서 솔직히 어리벙벙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한국에 민주주의 이념이 상륙했다”는 선언을 듣는 듯한 심경이었죠. 아참, 번역자가 책 속에 여봐란 듯이 나서는 게 프랑스 동네의 출판 관행인가요.

《똑같은 것은 싫다》 뒷표지를 보면 “한국사회는 물질주의에 기초한 체면사회이고 프랑스사회는 인본주의적 가치가 살아 있는 양심사회”라는 저자의 지적은 예리한 통찰에서 온 것”이라는 홍세화 기명의 문구가 있더군요. 저는 권유대로 책을 읽었는데 “프랑스는 프랑스의 위대함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간직하고 있다”는 결론을 접하며 황당했습니다. “프랑스에 대한 호의적인 관심과 비판적 시각이 함께 어우러졌다”는 저자의 자평이 무색해지더군요. 혹, 홍세화씨께서 우리네 출판 동네와 자주 접촉하다 보니 ‘봐주기’ 관행에 뒤늦게 물드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프랑스라는 것의 거울에 비친 우리네 모습은 영 보잘것없었지만 우리 사회와 문화에 대해 좀더 톨레랑스의 관점을 견지한다면, 문제 많은 현실 안에서도 그 보편가치를 나누고 누리려는 움직임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프랑스란 거울 없이도’ ‘톨레랑스란 말을 내세우지 않고서도’ 우리 독자의 주체적인 사유와 실천이 싹트고 있음을 반갑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하나의 예를 제시하며 이 글을 마칠까 하는데, 탁석산의 《한국의 정체성》과 《한국의 주체성》(이상 책세상)이 그것입니다. 이 저술들은 우리사회도 이제는 배타성과 자기 혐오라는, 뿌리깊은 이중성의 덩어리를 벗어나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객관화하고 보편화할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음을 알립니다. 앞서의 프랑스 이야기와 대조해서 정독하기를 독자 여러분께 감히 권유합니다. ●